

주간 한우정보

제18호

2021.11.29.

국내 소식

- ‘청탁금지법’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상향 경제효과

해외 소식

- 한국은 2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장
- 일본, 10일 이상 체외배양 소 수정란 송아지 생산
- 일본, 외국인 농업노동자 체류기간 무기한제 도입

전 국 한 우 협 회
한 우 정 책 연 구 소

‘청탁금지법’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상향 경제효과

□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‘청탁금지법’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‘설’과 ‘추석’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‘청탁금지법 개정안’을 의결

○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%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

-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‘설날 및 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’로 시행령에 담도록 함

○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어,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

-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9일 개최 예정인 본회 의결을 거쳐야 함

□ 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, 한우가격 하락 및 한우농가 소득 악화, 냉장육 중심 쇠고기 수입량 증대를 초래

○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년 2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보고서에 따르면,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.8%의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

- 16년 10월~17년 1월 한우 도축량이 전년 동 기간보다 7.1%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.6% 하락하여, 경락거래액은 16.1% 감소한 것으로 추정

○ 본격적인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난 17년 비육우 마리당 소득은 117만 6천 원으로 16년의 196만 2천 원 대비 59.9% 수준으로 급락

- 순수익도 98만 8천 원에서 13만 3천 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, 이후 18년과 19년에는 각각 5만 7천 원과 7만 6천 원의 적자를 기록

- 추석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던 20년에는 마리당 순수익이 5만 8천 원으로 회복

- 청탁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쇠고기가 시장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, 법 시행연도인 16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%가 늘어난 36만 6천 톤을 기록
- 이후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나 20년에는 16년 대비 21%가 늘어난 44만 3천 톤이 수입됨
- 특히 수입육 중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냉장육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, 16년 16.4%에서 20년에는 22.2%로 5.8%p가 높아짐

[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산업 동향]

(천원/마리, 천톤, %)

구 분		비육우 두당 수익성		수입 쇠고기	
		소득(전년 비)	순수익	수입량	냉장육 비율
2016		1,962 (151.4)	988	366(124.0)	16.4
2017		1,176 (59.9)	133	379(103.5)	20.7
2018		1,088 (92.5)	△57	415(109.6)	21.4
2019		1,025 (94.2)	△76	444(106.8)	19.9
2020		1,190 (116.1)	58	443(99.9)	22.2
변동	16~17	△786 (40.1% ↓)	△855	13 (3.5% ↑)	4.3%P
	16~20	△772 (39.3% ↓)	△930	77 (21.0% ↑)	5.8%P

자료 : 2020년 축산물생산비통계, 통계청/ 수출입무역통계, 관세청
주 : (전년 비)는 전년 대비 백분율

□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은 20년 추석과 21년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, 농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-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업관련단체는 연간 농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의 약 40%가 명절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들어 설과 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규제완화를 주장
-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타개책으로, 시행령을 개정, 20년 추석과 21년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
 - 20년 추석(10월1일) 선물가액 상향 기간 : 9월 10일 ~ 10월 4일
 - 21년 설날(2월12일) 선물가액 상향 기간 : 1월 19일 ~ 2월 14일

□ **농식품부는 보도자료(21.1.19)를 통해 20년 추석기간 선물가액 상향한 결과,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% 증가하고, 특히 10~20만원대 선물이 10%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**

○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, 수탁연구를 통해, 20년 추석 선물가액 상향으로 10~20만 원대 농수산물 추석 선물 판매량이 19년보다 30.45% 늘었다고 분석

- 분석은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선물판매 증가율 30.45%를 선물개수로 환산하면 12만 1,486개

- 8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10%와 20%로 가정하고, 선물 개당 가격을 중간 값인 15만 원으로 상정하여, 전체 농수산물시장에서 10~20만 원대의 선물 판매액 증가분을 추정하면 각각 1,812억과 906억 원 수준으로 추산

- 참고 자료 : ‘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’ 농촌경제연구원(20.11.30)

□ **21년 설 기간 농식품부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, 농식품 선물판매액은 5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**

○ 한우 등 축산물은 28% 늘었고, 청탁금지법상 가액상향 범위인 10~20만 원대는 31% 증가

- 자료는 농식품부 보도자료(21년 2월 1일자)이며, 조사대상 유통업체는 12개로 백화점 2개소, 대형마트 5개소, 홈쇼핑 및 온라인 몰 5개소

□ **한편, 한우협회 및 농민단체가 요구한 선물가액 상향이 무산된 21년 추석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**

○ 농협이 집계한 ‘2021년 추석 선물 판매액’ 자료에 따르면 10~20만원 농축수산물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, 품목별로는 과일 $\Delta 37.2\%$, 수산물 $\Delta 17.0\%$, 기타농축산 $\Delta 13.4\%$ 순이었음

- 축산유통부 집계에 따르면, 10~20만 원 선물세트 매출액은 20년 35억 9천만 원에서 21년 34억 5천만 원으로 3.9%(1억 4천만 원) 감소

□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에 따른 한우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, 명절기간 도축물량은 2% 증가하고, 연평균가격은 3%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

○ 먼저 명절기간 선물가액을 상향했던 20년 추석과 21년 설이 연도에 포함되도록 비교연도를 20년 6월에서 21년 5월까지로, 선물가액 조정이 없었던 기준연도를 19년 6월에서 20년 5월로 설정

- 다음으로 선물가액 상향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축물량, 가격 등에 대해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 변동을 비교 분석

- 명절기간은 명절대비 거래가 명절직전 2개월부터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, 설은 12~1월, 추석은 8~9월로, 4개월간을 대상으로 함

○ 분석 결과, 명절수요 도축두수는 비교연도 31만 8,600두로 기준연도 31만 2,300두보다 2%(6,300두)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- 명절수요 도축두수 증가분 6,300두는 연간 도축두수 증가분 8,300두의 72.4%를 차지하는 물량

- 명절수요 도축두수 비중도, 연간 도축두수가 1.1% 증가한 가운데, 40.8%에서 41.2%로 0.4%p 높아짐, 이는 선물가액 상향으로 명절선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반증

[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상향 효과 추정]

(원/kg, 천두, %)

구 분	한우 경락가격(지육)		도축두수		
	연 평균	명절가격	연간 계	명절수요	명절비중
기준연도(19.6. ~ 20.5.) (명절 선물가액 10만원)	18,595	18,563	765.1	312.3	40.8
비교연도(20.6. ~ 21.5.) (명절 선물가액 20만원)	20,241	20,086	773.8	318.6	41.2
비교연도/기준연도	108.9	108.2	101.1	102.0	0.4%p

자료 : 축산유통정보, 축산물품질평가원

주 : 1) 명절 특별수요 기간은 명절 직전 2개월로, 설은 12~1월, 추석은 8~9월로 각각 설정

2) 가격은 평균 가격, 도축 두수는 대상 기간 합계 수치

□ 명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비교연도 한우가격 상승률은 8.9%로, 이중 일부가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효과

- 이 기간 한우가격 상승에는 추세적 가격상승, 코로나로 인한 소비 증대 및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음
 - 따라서 가격상승률 8.9%에서 추세적 가격상승과 코로나 가격상승 효과를 뺀 나머지가 선물가액 효과로 볼 수 있음
- 우선, 추세적 가격상승을 도출하기 위해, 2016년 이후 한우 경락 가격을 보면, 2016년 16,284원에서 2019년 17,947원으로 4년간 10.2%, 연평균 약 2.5% 정도의 추세적 상승을 보임
 - 가격 상승률 8.9%에서 추세적 가격상승률 2.5%를 제한 6.4%가 코로나로 인한 가정수요 확대 및 선물가액 상향 효과의 합계로 볼 수 있음
- 코로나로 인한 가정수요 증대 가격효과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, 앞서 도출된 가격 상승률 8.9%에서 가격상승 추세 2.5%를 제외한 6.4%의 일부인 3%를 선물가액 상향효과로 가정

□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%를 전제로,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경제효과를 추산하면, 생산단계에서 2,050억 원, 소매단계에서 3,958억 원으로 산출됨

- 생산단계 경제효과는 연간 도축두수(77만 5천두(21년 추정))에 평균 도체중(420kg)과 지육가격(2만1천원)을 곱한 수치의 0.3%로 산출
 - $\{(77\text{만 } 5\text{천두}) \times (420\text{kg}) \times (21,000\text{원})\} \times 0.3\% = 2,050\text{억 원}$
- 소매단계 경제효과는, 생산이후 도매단계 및 소매 마진을 포함한 것으로, 생산단계 경제효과 2,050억 원에 생산자 수취율 51.8%로 나누어 산출
 - 생산단계 경제효과(2,050억 원) ÷ 생산자 수취율(0.518) = 3,958억 원

□ 한편, 명절수요 도축두수 증가율 2%를 기준으로 경제효과를 추산하면, 생산단계에서 563억 원, 소매단계에서 1,087억 원으로 산정됨

- 생산단계 경제효과는 명절 도축두수 증가(6,386두)에 평균 도체중(420kg)과 지육가격(21,000원)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 563억 원
 - 명절 도축두수 증가는 명절 도축두수(31만 9,300두)에 도축두수 증가율(2%) 곱하여 6,386두로 산출
 - 명절 도축두수는 21년 추정 도축두수(77만 5천두)에 명절 도축비율(41.2%)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 31만 9,300두
- 생산단계 경제효과 563억 원에 도소매 마진을 더한 소매단계 경제효과는 1,087억 원으로 산출됨
 - 소매단계 경제효과는 생산단계 경제효과(563억 원)에 생산자 수취율 51.8%로 나누어 산출

□ 시사점 및 요약 : 한우는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고, 10~20만 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7할 이상으로 선물세트 단가도 높기 때문에,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

- 명절기간 한우고기 수요 증대 등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며,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%를 가정하면, 생산단계에서 2,050억 원, 소매단계에서 3,958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
 - 명절기간 한우 공급 및 수요는 2%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, 경제적 효과는 생산단계에서 563억 원, 소매단계에서 1,087억 원으로 추정됨
- 한우정책연구소가 대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1년 추석 선물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10만 원 미만 14.8%, 10~20만 원대 74.3%, 20~30만 원대 10%, 30만 원 이상 0.9%로 나타남

작성 : 황명철 부소장, 서정근 연구원

한국은 2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장

- 미국육류수출협회(USMEF)는 최근 전략회의에서 지난 30년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장으로서 한국 시장 성장을 평가
 -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에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미국육류수출협회(USMEF) 전략기획회의 및 이사회에서는 미국 적색육의 대 한국 수출의 눈부신 성장에 주목
 - 미국육류수출협회(USMEF)는 약 30년 전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했으며, 한국지사는 지난 주 회의에서 미국산 적색육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들에 대해 공유
- 2021년 처음으로, 한국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, 고부가가치 냉장육 수출이 폭발적 성장세
 - 냉장 쇠고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% 증가했고, 냉장 돼지고기 물동량도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음
 - 한국지사는 소매수요 호황이 성장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한국 소비자들은 가정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단백질 선택권을 찾고 있다고 분석
 -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가정배달을 통한 미국 육류 판매도 늘고 있으며, 특히 지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
- 미국육류수출협회(USMEF)는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접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전략
 - 최근 식당과 카페에 대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식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, 당분간은 외식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

자료 : The Cattle Site (21.11.16.)

일본, 10일 이상 체외배양 소 수정란 송아지 생산

□ 일본 북해도대학 카와바라(川原) 교수 연구팀은 10일 이상 체외 배양한 수정란으로 송아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

○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체 정보(게놈; genom)을 분석하는 등, 육종 사이클의 극적인 가속이 전망되며, 2050년경에는 수정란을 사용한 ‘유전체 정보 육종’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

- 포유류 수정란은 원래 1개 세포로, 분열을 거듭하다 나중에 태아가 되는 부분과 태반이 되는 부분으로 나뉘어 배반포 상태가 됨
- 사람이나 쥐에서는 배반포가 자궁 안에서 착상해 임신하고 태아가 성장, 한편, 소는 배반포가 되어도 착상하지 않고, 한층 더 분열을 계속함
- 카와바라 교수는 “같은 포유류라도 소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쥐와 달라, 연구가 늦었다”라고 평가

○ 소의 수정란의 체외 배양은 종래, 배반포가 되는 수정 후 8일째까지가 한계였으나, 카와바라 교수 연구팀은 소의 수정란을 10일간 이상에 걸쳐서 체외 배양으로 기르는 것에 성공

- 체외 수정 후 8일째까지 배아를 배양액의 미세한 방울 속에서 키운 뒤 배양액이 스며든 겔 위로 옮겨 배양한다.
- 배양액에는 영양이 되는 성분을 대량으로 추가한 결과, 배아는 9일째 이후에도 세포 분열을 계속했으며, 이를 암소 자궁에 이식하자 임신이 되면서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음

□ 소의 수정란을 체외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의 발생 과정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됨

○ 사람이나 쥐의 배아 연구에서는 몸의 모든 세포로 자라는 배성간세포(ES세포)등이 실현되어, iPS 세포의 발견으로도 연결되었음

- 배성간세포(胚性幹細胞; ES세포(embryonic stem cells))는 ‘만능세포’라고도 하는데, 생체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로서 수정란 분열과정 중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미숙한 세포

- iPS(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) 세포란 ‘유도 만능줄기세포’라고도 하는데, 체세포 유래 인공적 다능성 줄기세포
- 이번 연구로, 소에서도 다양한 줄기세포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, “소 육종을 극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”고 카와바라 교수는 전망
- 소 육종이나 번식에서는, 체외 수정으로 배양한 배아의 이식이 넓게 실시되고 있으며,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면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
- 종전보다 배아가 성장한 단계까지 배양을 계속해 불량배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더욱 엄격한 선별로 임신성공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
- 향후 수정란 단계에서도 유전체 정보 평가가 가능할 전망, 수정란을 장시간 체외 배양하면 배아 세포 수가 늘어나, 일부 세포를 채취해 유전체 정보를 고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
- 기존 배양기술로는 배아 세포 수가 적어 유전체 정보 분석에 필요한 수십 개의 세포 채취가 어려웠음
- 2040년경에는 수정란의 유전체 정보 육종의 실용화가, 2050년경에는 수정란의 유전체 정보 분석을 활용한 육종이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
- 한편, 축산업은 온난화 가스의 일종인 메탄가스 배출량이 주목 받는 산업, 마리당 우유 생산량 증가 등 생산효율 향상은 온난화가스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
- 황소의 유전체 정보로부터 종우로서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,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이용하는 ‘유전체 정보 육종’은 2010년경부터 확산돼 소의 품종 개량이 비약적으로 가속화 됨
- 과거에는 번식으로 태어난 소의 성적과 혈통 정보를 통해 종우로서의 능력을 추정해 후보종우를 선택, 선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음
- 육종으로 우유와 쇠고기의 품질과 생산효율이 높아지면 농가 경영 개선과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됨

자료 : 일본경제신문(21.11.8.)

일본, 외국인 농업노동자 체류기간 무기한제 도입

-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업 분야의 외국인 체류자격 ‘특정 기능’에 대해, 22년부터 사실상, 체류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
 - 숙련된 기능이 있으면 체류자격을 몇 번이라도 갱신할 수 있고 가족 동반도 가능, 지금까지는 건설 등 2개 분야뿐이었지만 농업·제조·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넓힌다는 계획
 - 다른 장기취업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‘개호’를 포함해 ‘특정 기능’ 대상 업종 14개 분야 모두에서 ‘무기한’의 노동 환경이 갖추어지게 됨
 - 전문직 기술자들에게만 국한됐던 영주권을 노동자들에게 폭넓게 열어주는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전망
 - 현재, 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기능시험의 본연의 요건 등을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며, 향후, 수상 관저나 여당과 조정해, 22년 3월에 정식 결정해 정령이나 고시를 개정할 예정
- 체류자격 ‘특정 기능’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에서 즉시 전력감이 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9년 4월에 설치
 - ‘특정 기능’은 1호와 2호로 구분되는데, 실무경험이 있고 특별한 교육·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최장 5년의 ‘1호’를, 현장 총괄역이 될 수 있는 연도를 기능시험으로 확인하면 ‘2호’를 취득할 수 있음
 - ‘특정 기능 2호’는 갱신이 가능하고 가족도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체류 10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
 - 일본 정부는 ‘특정 기능 2호’ 대상에 11개 분야를 추가해 13개 분야로 조정하고 있음
 - ‘개호’는 추가하지 않지만, 이미 일본의 개호 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연장 등이 가능

- 자민당 등 보수파 사이에서는, 외국인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의 확대는 ‘사실상 이민 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’며 신중론이 뿌리 깊어, 결론까지 곡절을 겪을 수도 있음
 - ‘특정 기능’ 제도 도입 당시, 일본 정부는 23년도까지 34만 5천 명의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보았음
 - 현재 ‘특정 기능’ 취득자는 월 3천 명 정도로 추이하고 있어, 취업기한이 없어지면 계산상, 20년대 후반에 30만 명 규모가 될 전망
 - 일찍이 일본은 외국인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음, 후생노동성에 의하면, 20년 10월 말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는 172만 명
 -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인 기능실습(약 40만 명)이나 유학생(약 30만 명) 등 기한부 체류자격이 많고, 장기 취업은 주로 대학 졸업 이상이 대상인 ‘기술·인문 지식·국제 업무(약 28만 명)’ 등에 한정되고 있음
 - ‘농업’, ‘산업 기계 제조업’, ‘외식업’ 등 14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‘특정 기능’도, 장기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일손 부족이 만성화하고 있는 ‘건설’, ‘조선 관련 공업’의 2개 분야에 머물러 있음
 - 20년 10월 말 기준 농업 분야 노동자 수는 3만 8천 명이며, 최장 5년 체류 가능한 ‘기능실습생’이 3만 3천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
-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국경조치의 영향도 있어, 특정 기능의 자격으로 일하는 것은 8월 말 시점에서 약 3만 5천 명, 일본상공회의소는 20년 12월, ‘외국인 인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’라며 대상 분야 추가 등을 요망하였음
 - 외국인 수용 정책에 정통한 일본 국제교류센터의 멘주·토시히로(毛受敏浩) 이사는 “현업 외국인에게 널리 영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입국 정책의 큰 전환”이라고 지지

※ 특정 기능

- 일본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인 6월 말 현재 약 282만 명. 활동 내용 등에 따라 영주자(약 81만 명), 기능실습(약 35만 명) 등 체류 자격이 있음
-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 신설된 ‘특정 기능’은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 14개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
- 출입국 관리청에 의하면, 8월 말 시점에서 약 3만 5천 명 가운데, 음식료품 제조업(약 1만 2천 명)과 농업(약 4,600명)의 2분야에서 반수 가까이를 차지
 - 3년간의 기능실습을 마친 사람이 ‘특정 기능’의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일본어 시험은 면제되고 실습 때와 같은 분야라면 기능시험 합격도 불필요
-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, 새로운 인재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으며. 실습 종료 후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, 체류자격을 ‘특정 기능’으로 전환해 일본에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

자료 : 일본경제신문 (21.11.17.)